

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



세종 특별자치시의회

보도자료

제공일자	2026. 9. 11.(금)	사진 · 영상	사진(○), 영상(×)
보도일자	2026년 9월 11일(금)부터		
담당부서	의정담당관 홍보기획팀	담당자	김재덕 팀장(044-300-7241)
			이희준 주무관(044-300-7006)

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, 행정수도 완성 위해 전국 누볐다

- 대구·울산·제주 광역의회 이틀간 순회 방문...행정수도특별법·지방의회법 협조 당부 -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10일 대구광역시의회(의장 임인환)와 울산광역시의회(의장 이영해)를, 1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(의장 송영훈)를 잇달아 방문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각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.

안 의장은 이날 방문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,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TF 단장을 맡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.

안 의장은 "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전체의 시대적 과제"라며 "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할 골든타임"이라고 강조했다.

이어 "지방의회법 제정 역시 지방자치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"라며 "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때 국회를 움직이는 힘도 커질 것"이라고 말했다. 이어 지방의회법 학술세미나와 전국 지방의원 결의대회 개최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.

한편 안 의장은 취임 이후 경기, 인천, 충북, 대전, 전북, 경북, 서울에 이어 이번 대구, 울산, 제주까지 방문하며 사실상 전국 주요 광역의회를 대부분 순회했다.

안 의장은 "전국을 다니며 만난 의장님들 모두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셨다"며 "이 공감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